

# 지방행정의 달인 후보자 공적 요약서

| 선발분야                                                                                                                                                                                                                | 소속             | 직급  | 성명           | 근속기간   |
|---------------------------------------------------------------------------------------------------------------------------------------------------------------------------------------------------------------------|----------------|-----|--------------|--------|
| 복지·안전                                                                                                                                                                                                               | 양주소방서<br>화재예방과 | 소방위 | 이일호<br>(李一鎬) | 20년 6월 |
| 공적내용                                                                                                                                                                                                                |                |     |              |        |
| <b>I. 공적요지</b>                                                                                                                                                                                                      |                |     |              |        |
| 「현장실증을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한 안전협업의 달인」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피난약자 분류체계 시범 후 市 예산 7,200천원 확보 및 장기요양기관 심사항목 신설</li><li>- 외국인 신속119신고 스티커 3,000부 보급 후 市 추경 5,000천원 확보, 700개소 확대</li><li>- 경기북부상공회의소·양주시 MOU 기반, 화재취약대상 안전물품 보급 추진</li></ul> |                |     |              |        |
| <b>II. 공적사항</b>                                                                                                                                                                                                     |                |     |              |        |
| <b>1. 현장실증으로 피난약자 분류체계를 예산과 제도로 정착</b>                                                                                                                                                                              |                |     |              |        |
| 장기요양시설은 와상, 거동불편, 인지저하 등 입소자 상태에 따라 화재 시 대피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나, 현장에서는 입소자별 피난 가능 여부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송추요양타운 7개소를 대상으로 피난약자 유형별 재실알림판과 침상별 색상표시를 시범 적용하여, 화재 시 입소자 상태를 신속히 식별할 수 있는 현장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                |     |              |        |
|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양주시와 협의하여 2025년 본예산 7,200천원을 확보하고, 관내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피난약자 분류체계 제작·보급을 추진하였다.                                                                                                                            |                |     |              |        |
| 또한 일회성 물품 보급에 그치지 않도록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장기요양기관 허가·갱신 심사항목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                |     |              |        |
| 그 결과 현장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예산사업을 넘어 제도적 관리기준으로 정착되었으며, 경기도 적극행정 최우수 성과로 이어졌다.                                                                                                                                              |                |     |              |        |
| <b>2. 외국인 근로자 신고 지연요인을 분석하여 신속119신고 체계 마련</b>                                                                                                                                                                       |                |     |              |        |
|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화재 최초 발견자가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가 많으나, 언어장벽으로 상황 설명이 어렵고 사업장 주소를 알지 못해 신고가 지연될 우려가 컸다.                                                                                                                            |                |     |              |        |

## 공적내용

또한 선불폰·알뜰폰 사용 등으로 신고자 위치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화재 시 정전으로 와이파이 사용이 제한될 경 데이터 요금 부담 때문에 인터넷 기반 신고수단 활용도 어려워질 수 있다.

119상황실 역시 신고자의 국적과 사용 언어를 즉시 특정하기 어렵고, 통역 연결을 거쳐 화재·구조·구급 여부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앱 설치나 웹 접속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화재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해 119로 문자 전송하면, 사업장 주소·상호·관계인 전화번호 등 핵심 정보가 함께 전달되도록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였다.

이를 위해 다국어 안내문이 포함된 외국인 신속119신고 스티커를 자체 제작하고, 경기북부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4개 시·군에 3,000부를 보급하였다. 이후 실제 보급실적과 현장 반응을 근거로 양주시 및 의정부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2026년 4월 추가경정예산 5,000천원을 확보하였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 700개소로 확대 보급을 추진하였다. 해당 시책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우수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어 11개 관서 동시 추진으로 확산되었다.

### 3. 검증된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업과 안전환경 개선 추진

업무추진의 차별성은 단순히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현장에서 시범 적용과 일부 보급을 통해 성과를 만든 뒤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에 임한 점에 있다. 피난약자 분류체계는 자체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양주시 예산 편성과 규칙 개정을 이끌어냈고, 외국인 신속119신고 스티커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와의 선제 보급실적을 바탕으로 양주시 추경예산 확보와 확대 보급으로 연결하였다.

또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양주시와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소규모 상가·공장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재래시장 2개소 보이는 소화기 설치, K급 소화기 및 소화패치 보급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물품 보강을 통해 화재 초기대응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번 성과는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한 데 그치지 않고, 현장문제를 행정성파로 전환하여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낸 적극행정 사례이다. 앞으로도 현장 확인, 시범 적용, 관계기관 협의, 예산·제도 연계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